

행운신념이 긍정적 인지편향과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하환호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변충규 (경상국립대학교 기업가정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국문 요약

창업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성변수인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을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행운이다. 사업성공이 행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과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학술적으로 무관심했던 이유는 행운이 일종의 미신이며, 예지나 초감각적 지각과 관련이 있고, 외부환경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행운을 개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면서 부터 행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운신념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고, 이 행운신념이 긍정적 인지편향과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행운신념이 긍정적 인지편향인 자기고양 편향과 통제착각 편향, 낙관주의 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긍정적 인지편향(자기고양 편향, 통제착각 편향, 낙관주의 편향)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또한 모두 채택되었다. 행운신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긍정적 인지편향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행운신념→긍정적 인지편향→창업효능감'의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행운신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행운신념의 간접효과, 즉 긍정적 인지편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핵심주제어: 행운신념, 긍정적 인지편향, 자기고양편향, 낙관주의편향, 통제착각편향, 창업효능감

1. 서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기확신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 부른다(Bandura, 1997).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업무를 추구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힘든 일을 선택하고, 모험을 즐기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직면하여도 이를 극복해내는 경향이 있다(Luthans et al., 2007). 창업분야에서는 창업자의 창업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확장한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개념을 도입하였다.

창업효능감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선행변수로 창업효능감

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이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McGee et al., 2009; 현선혜 외, 2016). 둘째, 창업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개인의 성격특성, 창업교육, 위험성향, 기업가적 역할모델 등이 창업효능감의 선행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Zhao et al., 2005; McGee et al., 2009; 정대용·채연희, 2016; 양준환 외, 2017). 셋째, 창업효능감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기업가정신, 이전의 기업경험, 위험성향, 조절초점성향, 창업자의 성격특성 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창업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Boyd & Vozikis, 1994; Chen et al., 1998; Krueger et al., 2000; McGee et al., 2009).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창업효능감이 창업태도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변수의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통해 창업태도와 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 주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ano@gnu.ac.kr

**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기업가정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cgbun@gnu.ac.kr

· 투고일: 2023-09-10 · 1차 수정일: 2023-10-17 · 게재확정일: 2023-10-26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연구들은 창업효능감이 어떤 개인적 특성요인들에 의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행운(luck)과 비합리적 신념(irrational beliefs), 인지편향(cognitive bias)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행운(luck)이다. 스탠리(2014)는 20년간 평균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부자들을 733명 인터뷰하였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12%가 경제적 성공요인으로 운을 꼽았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자들의 성공비결이 기회선택과 위험추구 등의 태도에 있었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운과 관련한 부자들의 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황보윤 외, 2019).

이처럼 사업성공이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운을 미신(superstition)이나 예지(precognition), 초감각적 지각(extrasensory perception)과 연관 짓거나 외부환경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행운을 개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로 보고 행운신념(luck in belief)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이 되면서부터 행운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운신념이 창업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행운신념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변수로서 기존연구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긍정적 인지편향과 창업효능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positive cognitive bias),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II. 문헌고찰 및 가설설정

2.1. 행운신념

행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행운을 우연이며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으로 보고, 개인이 특정 사건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행운을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내부요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우연이 환경적 특성이라면 행운은 개인의 내적 특성이라고 본다. 즉 ‘나는 운이 좋다’ 혹은 ‘나는 운이 없다’와 같이 행운을 개인의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두 번째 관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Darke & Freeman(1997)은 개인이 우연한 사건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비합리적 신념이나 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행운개념을 도입하였다(Day & Maltby, 2003).

이후 Darke & Freeman(1997)은 행운을 자신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믿는 것을 행운신념(belief in luck)이라 이름 지었다. Darke & Freeman(1997)은 행운을 개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이후부터 행운신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후속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복권과 도박 등 위험추구행동에 행운신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늘기 시작했다(Wohl et al., 2007; 2011).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행운과 불운에 대한 경험이 사람들의 인지과 감정,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Day & Maltby(2003)는 행운신념이 높을수록 낙관적인 긍정적 정서반응이 높은 반면, 행운신념이 낮을수록 우울과 걱정과 같은 부정적 정서반응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Damisch et al.(2006)는 행운신념이 높은 사람들이 강한 통제감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을 좋아하고, 쉽게 위험추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Wiseman & Watt(2004)는 행운신념이 높은 사람들이 기회포착을 잘 한다는 사실을, 이병관·이국희(2015)는 행운신념이 높을수록 위험추구 의사결정을 더 많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황보윤 외(2019)는 행운신념이 창업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우연기술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Kostovićová(2019)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같은 인지적 성과에 미치는 행운신념의 영향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행운신념이 높은 소비자들이 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친숙하지 않거나 새로운 상품들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Zhao et al., 2021). 또한, 행운신념의 문화차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컨대 Harris(2022)는 서유럽에서보다는 러시아와 아시아에서 행운신념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행운신념이 사람들의 인지와 감정, 의사결정 등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2. 긍정적 인지편향

사람들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지적 필터를 통해 수정한 후에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기도 한다. 사람들이 인지과정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정보해석의 주관성을 Taylor & Brown(1988)은 인지적 착각 혹은 편향(cognitive bias)이라 불렀다. 이들은 인지편향이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고양하려는 동기에서 나온다고 보았다(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88). 이러한 인지편향의 긍정적 효과가 알려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인지편향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인지편향이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편향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데, 연구를 집중했다.

그러나 Cummins & Nistico(2002)는 Taylor & Brown(1988)이 제시한 인지편향의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인지편향이 고난이나 역경에 대한 적응성, 만족감과 행복감, 타인에 대한 관심, 창의성 등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백수경·고재홍, 2007; Myers & Diener, 1995; Taylor & Brown, 1988; Taylor et al., 1991). 이후 사람들의 인지과 감정,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편향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일컬어 긍정적 인지편향으로 명명하였다(하환호·임충혁, 2010). 대표적인 긍정적 인지편향으로는 자기고양 편향(self enhancement bias), 비현실적 낙관주의 편향(unrealistic optimism bias), 통제착각 편향(illusion of control bias)이 있다.

인지편향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후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속속 진행되었다(Block & Colvin, 1994; Seligman, 2005, Taylor & Brown, 1988). 맨 먼저는 심리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몇몇 인지편향들이 희망과 심리적 안녕, 행복 그리고 창의성 등 개인의 성격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다(Cummins & Nistico, 2002).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긍정적 인지편향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혹은 결혼생활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Murray et al., 2005), 질병의 치료 예후가 좋다는 연구(Taylor et al., 2000), 행복도가 더 높고, 기대수명이 높다는 연구(Seligman et al., 2005) 등이 있다.

긍정적 인지편향은 경영 및 창업분야에서도 도입되었다. 경영학분야에서는 긍정적 인지편향이 지각된 위험과 예상된 후회감을 매개로 하여 구매연기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하환호·임충혁, 2011), 고객의 불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하환호, 2012), 긍정적 인지편향이 목표지향성과 고객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적응적 판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인구·지성구, 2015), 긍정적 인지편향이 위험태도와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하환호·변충규, 2018)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창업분야에서는 창업자들이 비창업자들과는 다른 인지편향을 보이며, 이런 인지편향이 개인들의 창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Zhao et al., 2005), 긍정적 인지편향이 위험추구결정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하환호·변충규, 2013), 창업가의 인지편향이 창업기회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대엽·박재환, 2020), 인지편향이 창업가의 감정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Zhao & Xie, 2020), 인지적 편향이 벤처기업의 탄생과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Abatecola et al., 2022)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긍정적 인지편향들은 개인의 행복과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충동구매와 같은 소비행동, 창업과 관련한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3. 창업효능감

개인의 목표달성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개념이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일자리 또는 특정업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특정업무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업무를 추구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았다(Bandura, 1997).

그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힘든 일을 선택하고, 모험을 즐기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직면하여도 이를 극복해내는 경향이 있다(Luthans et al., 2007).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비판적이며, 부정적 피드백과 사회적 평가, 좌절, 실패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Bandura & Locke, 2003). 이러한 특성을 지닌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고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자기존중감(self-esteem)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Kevill et al., 2017).

창업분야에서는 창업자의 창업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확장한 창업효능감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Chen et al.(1998)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의 정도’로 창업효능감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Chen et al.(1998)은 창업자로서 필요한 능력인 마케팅, 재무적통제, 관리, 혁신, 위험감수성 등 다섯 개의 요인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바탕으로 창업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McGee et al.(2009)는 창업자의 기회탐색 단계, 사업아이디어 실행계획수립 단계, 필요자원의 정리/배열단계, 사업시작과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 실행단계 등 사업화 과정에서의 자신감과 능력을 바탕으로 창업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척도개발을 개발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창업의도와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변수로 창업효능감을 활용하고 있다(Boyd & Vozikis, 1994; Chen et al., 1998; Krueger et al., 2000).

창업효능감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선행변수로 창업효능감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이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 예컨대, McGee et al.(2009)은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불확실한 창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도 높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능력을 가지며, 창업효능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선혜 외(201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창업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둘째,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개인의 성격특성, 창업교육, 위험성향, 기업가적 역할모델 등이 창업효능감의 선행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Zhao et al., 2005; McGee et al., 2009; 정대용·채연희, 2016; 양준환 외, 2017). 특히 김상표 외(2017)는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시간관과 창업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현재채택수준과 미래지향수준이 높을수록 창업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효능감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Zhao et al.(2005)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교육을 받기 이전의 위험성향, 기업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창업효능감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재환·최민정(2016)의 창업효능감 연구에서 향상초점 지향적 대학생들이 예방초점 지향적 대학생들보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창업자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정대용·채연희, 2016).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종훈, 2021),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신향숙 외, 2022)도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창업효능감이 창업태도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특성 및 환경특성 변수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4. 가설설정

행운을 개인의 내적특성으로 본다면 행운을 믿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행운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운이란 우연적이고 불안정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한다(Darke & Freeman, 1997). 그러므로 자신이 행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성공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성공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운이 작용한 결과로 일어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Keren & Wagenaar, 1985). Darke & Freeman(1997)와 Taylor & Brown(1988)의 연구에서는 행운신념이 긍정적 착각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자신감과 통제감, 낙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ay & Maltby(2003)의 연구에서는 행운신념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행운신념은 낙관성과 자기존중감, 비합리적 신념들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hl & Enzle(2002)과 Wohl et al.(2011)의 도박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행운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운을 개인적 속성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고양되거나 과도한 자신감을 느끼게 되어 도박중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보윤 외(2019)의 연구에서도 행운신념이 낙관성과 위험감수와 같은 우연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행운신념은 자기고양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행운신념은 통제착각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행운신념은 낙관주의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자기고양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투사(self-presentation)하기를 원하며, 원하지 않은 결과들로부터 자아를 보호(striving for reassurance)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자기고양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는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과잉기대)하고, 부정적인 결과는 더 적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과소기대)하게 된다고 한다(Hoorens, 1993). 자기고양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Dave et al., 2010; Dohmen et al., 2010). 이에 따라 자기고양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와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를 위험추구자로 보다는 위험회피자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하환호·변중규, 2018; Abatecola et al., 2022; Zhao & Xie, 2020). 이에 따라 창업과 같은 위험이 따르는 일에 대해서도 높은 자신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자기고양편향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제착각편향은 실제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제착각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Folkes, 1988). 즉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높아지며,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실제로 자기통제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Berger & Tymula, 2022; Taylor & Brown, 1988; 하환호·변중규, 2018; Abatecola et al., 2022; Zhao & Xie, 2020). 따라서, 통제착각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이나 사건을 보다

잘 통제한다고 믿고 있기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 또한 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제착각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창업효능감 또한 높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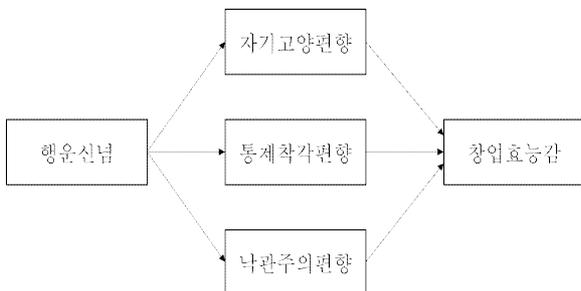
가설 5: 통제착각편향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현실적 낙관주의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질병, 교통사고, 이혼, 알코올중독과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복권당첨, 행복한 결혼생활, 장수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일은 자신에게 더 잘 일어날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Peterson & De Avila, 1995; Weinstein, 1980). 이러한 인지적 환상 때문에 비현실적 낙관주의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흡연, 음주운전, 안전하지 못한 섹스 등 치명적인 위험이 뒤따르는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Weinstein, 1980).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비현실적 낙관주의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제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Gibson & Sanbonmatsu, 2004). Ottesen et al.(2005)와 하환호·변충규(2013), Abatecola et al.(2022), Zhao & Xie(2020) 등은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동기가 높고, 실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비현실적 낙관주의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덜 위험스럽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들 또한 덜 일어날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즉 낙관주의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위험이 따르는 창업에 대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낙관주의편향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가설설정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3.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만20~5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응답자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피험자의 권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설문참여를 부탁하였다. 이후 응답자들은 응답 절차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세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첫 단계는 행운 신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었다. 이 단계에서 피험자들은 행운신념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피험자들은 긍정적 인지편향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창업효능감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최종 수집된 표본은 400명으로,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부실한 응답을 한 7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최종표본은 393명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남성 202명(51.4%), 여성 191명(48.6%)이며, 연령대는 20대는 100명(25.4%), 30대 98명(24.9%), 40대 95명(24.2%), 50대 이상 100명(25.4%)으로 구성 되어 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측정개념을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행운신념을 ‘자신이 운이 좋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행운신념은 Darke & Freeman(1997)이 개발하고, 황보운 외(2019)가 사용한 7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측정방법을 참고하여 긍정적 인지편향을 측정하였다. 먼저, 자기고양편향을 ‘성격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지각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정을 위해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Cummins & Nistico(2002)와 Taylor & Brown(1988), 하환호·임충혁(2010)이 사용한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10문항을 이용하였다. 다음은 비현실적 낙관주의편향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측정에는 Weinstein(1980)이 개발하고, Lerner & Gonzalez(2005)와 Lerner & Keltner(2001)가 사용한 15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응답자들에게 15가지의 사건을 제시하고 이 사건들이 본인에게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착각편향의 측정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통제력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7가지의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이들 사건들을 응답자 자신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지'를 묻는 Berrenberg(1987)가 개발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창업능력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박재환·최민정(2016), 정대용·채연희(2016)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의 평가에는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IV. 실증결과분석

4.1.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설문항목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검정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0.7~0.9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Nunnally, 1978).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라 적재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적재된 요인이 일관되지 않은 창업효능감 2개 항목, 행운에 대한 신념 3개 항목, 자기고양편향 2개 항목, 통제착각관향 3개 항목, 낙관주의편향 6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의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KMO값이 0.872로 나타나 변수와 관측치의 수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타당성과 신뢰도 검정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N=393)

요인	변수	Component				
		1	2	3	4	5
창업효능감	SE2	.106	.076	.018	.796	.095
	SE3	.208	.226	.106	.732	.038
	SE4	.250	.069	-.021	.710	.039
	SE5	.113	.076	.055	.757	.135
	SE6	.158	.148	.076	.762	.078
	행운신념	LB1	.105	-.127	.078	.018
LB2		.102	.261	-.069	.199	.588
LB3		.042	.044	.068	.012	.815
LB4		-.010	.171	-.060	.157	.755
통제착각 편향	IC2	.566	.041	-.110	.087	.066
	IC4	.758	.139	.093	-.026	.051
	IC5	.608	.183	.203	.157	-.134
	IC7	.707	.051	.077	.181	-.032
	IC8	.754	.154	.097	.134	-.103
	IC9	.680	.297	.140	.049	-.102
	IC10	.689	.273	.055	.142	-.033
	IC12	.526	.123	.024	.257	.191
	IC13	.532	.123	-.084	.280	.017
	IC15	.709	.187	-.050	.096	.049
	IC16	.711	.124	-.017	.136	.163
IC17	.699	.100	-.003	.030	.196	
낙관주의 편향	OP2	.105	.167	.703	-.118	-.032
	OP4	.087	.308	.513	.169	-.074
	OP7	.098	.271	.406	.138	-.206
	OP9	.010	.176	.545	.181	.104
	OP10	-.038	.342	.624	.175	-.203

	OP11	-.132	.244	.477	.213	-.215
	OP12	.042	-.097	.796	.015	.147
	OP13	.044	.067	.748	-.147	.070
	OP15	.038	.021	.695	-.072	.118
자기고양 편향	SS1	.331	.626	.007	.089	.302
	SS2	.390	.612	.072	.093	.289
	SS3	.095	.733	.309	.205	-.144
	SS4	.421	.582	.081	.122	.121
	SS6	.232	.730	.018	.074	.185
	SS7	.270	.717	.103	.153	.159
	SS9	.026	.768	.284	.222	-.151
	SS10	.017	.722	.265	.234	-.129
	고유값	6.278	4.728	3.918	3.475	2.707
	누적분산(%)	16.522	28.963	39.274	48.419	55.542
Cronbach's α	.900	.881	.816	.860	.743	

개별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개념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를 추출하였다. 개념 신뢰도는 .812~.928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는 .514~.588로 나타나 Bagozzi & Yi(1998)가 제시한 기준(개념 신뢰도 .60 이상, AVE .50 이상)을 충족시켰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측정항목	표준화 요인적재량	AVE	개념신뢰도			
창업효능감	SE2	.722	.588	.876			
	SE3	.825					
	SE4	.736					
	SE5	.653					
	SE6	.745					
행운신념	LB1	.642	.526	.812			
	LB2	.679					
	LB3	.937					
	LB4	.659					
통제착각 편향	IC2	.537	.522	.928			
	IC4	.709					
	IC5	.607					
	IC7	.682					
	IC8	.757					
	IC9	.725					
	IC10	.684					
	IC12	.569					
	IC13	.521					
	IC15	.714					
	IC16	.703					
IC17	.649						
낙관주의 편향	OP2	.633	.531	.910			
	OP4	.615					
	OP7	.675					
	OP9	.730					
	OP10	.719					
	OP11	.666					
	OP12	.659					
	OP13	.690					
	OP15	.652					
	자기고양 편향	SS1			.768	.514	.893
		SS2			.772		
SS3		.648					
SS4		.752					
SS6		.773					
SS7		.793					
SS9		.617					
SS10		.588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0.05 유의수준(양쪽)하에서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의 상관계수가 0.5를 초과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IF)은 10보다 작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10보다 크게 나왔기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의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구성개념간의 상관행렬

	Mean	Std.	1	2	3	4	5
1. 행운신념	3.352	.696	1				
2. 자기고양편향	3.102	.701	.219***	1			
3. 통제착각편향	3.366	.682	.191***	.475***	1		
4. 낙관주의편향	3.980	.647	.004	.458***	.189***	1	
5. 창업효능감	3.419	.739	.207***	.389***	.387***	.196***	1

* p<0.10,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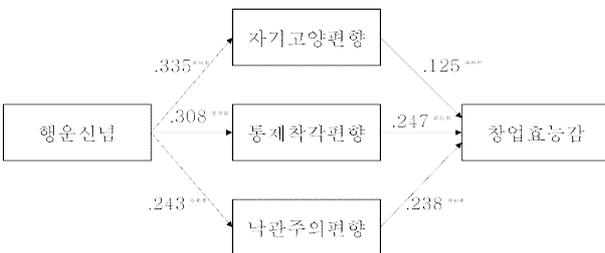
4.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402(df=4)$, $\chi^2/DF=4.402$, GFI=.996, AGFI=.933, RMR=.011, RMSEA=.093, CFI=.993으로 모든 지표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 개념들 간의 가설관계를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Bagozzi & Yi, 1988).

<표 4> 경로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P
H1	행운신념 → 자기고양편향	.335	.050	7.028	.000
H2	행운신념 → 통제착각편향	.308	.041	6.402	.000
H3	행운신념 → 낙관주의편향	.243	.038	4.960	.000
H4	자기고양편향 → 창업효능감	.125	.046	2.673	.008
H5	통제착각편향 → 창업효능감	.247	.056	5.266	.000
H6	낙관주의편향 → 창업효능감	.238	.062	5.086	.000

* p<0.10, **p<0.05, *** p<0.01



* p<0.10, **p<0.05, *** p<0.01

<그림 2> 경로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먼저 행운신념이 자기고양편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표 4>와 <그림 2> 참조). 그 결과, 행운신념이 자기고양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은 채택(Estimate=.335, C.R.=7.028) 되었다. 다음은 행운신념이 통제착각편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행운신념이 통제착각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2는 채택(Estimate=.308, C.R.=6.402) 되었다. 다음은 행운신념이 낙관주의편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행운신념이 통제착각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3도 채택(Estimate=.243, C.R.=4.960) 되었다.

자기고양편향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고양편향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4는 채택(Estimate=.125, C.R.=2.673) 되었다. 다음은 통제착각편향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제착각편향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5는 채택(Estimate=.247, C.R.=5.266) 되었다. 다음은 낙관주의편향이 창업효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낙관주의편향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6 역시 채택(Estimate=.238, C.R.=5.086)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행운신념은 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편향, 낙관주의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편향, 낙관주의편향은 창업효능감에 각기 다른 정도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운신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긍정적 인지편향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결과, ‘행운신념→자기고양편향→창업효능감’의 경로계수는 .130(p=.001)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행운신념→통제착각편향→창업효능감’의 경로계수는 .121(p=.001)로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행운신념→낙관주의편향→창업효능감’의 경로계수는 .098(p=.001)로서 이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행운신념의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운신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긍정적 인지편향의 매개효과 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Bootstrapping에 의한 매개효과 분석

경로	간접효과
행운신념 → 자기고양편향 → 창업효능감	.130***
행운신념 → 통제착각편향 → 창업효능감	.121***
행운신념 → 낙관주의편향 → 창업효능감	.098***

* p<0.10, **p<0.05, *** p<0.01

V. 결론

창업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특성변수인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을 주목하였다. 특히 주목한 것은 행운이다. 사업성공이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과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논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학술적 무관심은 행운을 일종의 미신으로 보거나, 예지나 초감각적 지각과 연관 짓거나, 외부환경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겼다. 행운을 개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변수로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면서부터 행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운신념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고, 이 행운신념이 긍정적 인지편향과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행운신념이 긍정적 인지편향(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편향, 낙관주의편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긍정적 인지편향(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편향, 낙관주의편향)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또한 모두 채택되었다. 행운신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긍정적 인지편향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운신념→긍정적 인지편향→창업효능감’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나 행운신념과 창업효능감의 관계에서 행운신념의 간접효과, 즉 긍정적 인지편향의 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 창업효능감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혔다. 즉 행운신념과 같은 개인적 특성변수들이 창업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왔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인지적 편향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창업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창업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인지편향을 Cummins & Nistico(2002)가 제시한 대로 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편향, 비현실적 낙관주의편향 등 세 가지 편향으로 나누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큰 학문적 의의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 행운신념이 긍정적 인지편향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고양편향과 통제착각편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긍정적 인지편향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착각편향과 낙관주의편향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창업교육 및 창업정책을 수립하는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예비창업자들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 긍정적 심리자본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이 긍정적 심리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이 높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창업효능감도 높으므로 이를 예비창업자 선발이나 창업관련 지원사업공모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몇 가지 사전질문을 통해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선발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들은 내적통제소재, 위험감수성과 진취성, 내재적 동기 등의 개인의 심리특성 변수들을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인의 심리특성변수들이 행운신념과 관련하여 창업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향후 이를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행운신념과 긍정적 인지편향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만을 파악하였다. 이들의 영향은 성, 연령,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인구통계적 특성별 차이를 밝히는 추가연구 또한 필요하다. 셋째, 창업효능감에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기고양편향과 낙관주의편향, 통제착각편향 세 가지 긍정적 인지편향 만을 영향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을 찾는 추가연구 또한 필요하다.

REFERENCE

- 김대엽·박재환(2020). 창업가의 인지편향이 지각된 위험과 조절된 창업효능감에 따라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1), 95-112.
- 김상표·변중규·허환호(2017).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시간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6), 79-88.
- 박재환·최민정(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9-19.
- 백수경·고재홍(2005). 자기고양편향이 행복감과 인기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67-86.
- 스탠리, 토마스 J.(2014). *부자들의 선택*. 서울: 북하우스.
- 신향숙·배지은·조미옥·이용기(2022). 액티브 시니어의 조직적과 기능적 창업역량: PLS-POS를 이용한 창업 효능감과 창업의지의 이질성 관계 확인. *벤처창업연구*, 17(2), 15-21.
- 양준환·정대용·김준광(2017). 기업가적 역할모델이 한국 대학생의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2(3), 115-136.
- 이병관·이국희(2015). 행운과 불운이 배경 대 대상에 대한 주의에 미치는 효과: 탐색적 연구. *감성과학*, 18(3), 35-48.
- 이인규·지성규(2015). 긍정적 환상이 적응적 판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20(4), 167-176.

- 이종훈(202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의지 간 구조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695-706.
- 정대용·채연희(2016).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1), 85-110.
- 하환호(2012). 긍정적 인지편향이 고객의 불평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경영학회지*, 23(3), 87-107.
- 하환호·변충규(2013). 긍정적 인지편향이 위험추구결정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8(3), 81-100.
- 하환호·변충규(2018). 긍정적 환상이 충동구매를 자극하는가?: 소비자의 긍정적 인지편향과 위험태도 및 충동구매 간의 관계. *마케팅논집*, 26(1), 35-56.
- 하환호·임충혁(2011). 긍정적 인지편향과 지각된 위험, 예상된 후회감이 구매연기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4(6), 3633-3653.
- 현선해·서문교·권인수(2016). 대학생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및 취업스트레스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 연구. *벤처창업연구*, 11(6), 39-49.
- 황보윤·김영준·김홍태(2019). 행운에 대한 신념과 창업 기회 역량과의 관계에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5), 79-92.
- Abatecola, G., Cristofaro, M., & Giannetti, F.(2022). How can Biases Affect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Toward a Behavioral Approach to Unicorn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Management Journal*, 18(2), 693-711.
- Baek, S. K., & Ko, J. H.(2007). The Relations Among Self-enhancement, Subjective Happiness, and Peer Statu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1), 89-104.
- Bagozzi, R., & Yi, Y. J.(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 Locke, E. A.(2003). Negative Self-efficacy and Goal Effects Revisit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1), 87-99.
- Berger, A., & Tymula, A.(2022). Controlling Ambiguity: The Illusion of Control in Choice Under Risk and Ambigui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65(3), 261-284.
- Berrenberg, J. L.(1987). The Belief in Personal Control Scale: A Measure of God-Mediated and Exaggerat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2), 194-206.
- Block, J., & Colvin, C. R.(1994). Positive Illusions and Well-being Revisited: Separating Fiction from Fact. *Psychological Bulletin*, 116(1), 28.
- Boyd, N., & Vozikis, G.(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Chen, C., Greene, P.,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ung, D. Y., & Chae, Y. H.(2016).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Self-Leadershi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Korean College Student Mediated b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1), 85-110.
- Cummins, R. A., & Nistico, H.(2002). Maintaining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Cognitive Bia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37-69.
- Damisch, L., Mussweiler, T., & Plessner, H.(2006). Olympic Medals as Fruits of Comparison?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Sequential Performance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2, 166-178.
- Darke, P. R., & Freedman, J. L.(1997). The Belief in Good Luck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86-511.
- Dave, C., Eckel, C. C., Johnson, C. A., & Rojas, C.(2010). Eliciting Risk Preferences: When is Simple Better?. *Journal of Risk Uncertainty*, 41(3), 219-243.
- Day, L., & Maltby, J.(2003). Belief in Good Luc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Optimism and Irrational Beliefs.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37(1), 99-110.
- Dohmen, T., Falk, A., Huffman, D., & Sunde, U.(2010). Are Risk Aversion and Impatience Related to Cognitive A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00(3), 1238-1260.
- Folkes, V. S.(1988). The Availability Heuristic and Perceived Ris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1), 13-23.
- Gibson, B., & Sanbonmatsu, D. M.(2004). Optimism, Pessimism, and Gambling: The Downside of Optim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2), 149-160.
- Greenwald, A. G.(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Ha, H. H.(2012). The Effects of Positive Cognitive Bias on Consumer Attitude toward Complaining.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3(3), 87-107.
- Ha, H. H., & Byun, C. G.(2013). The Effects of Positive Cognitive Bias on Risk-taking Decision-making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8(3), 81-100.
- Ha, H. H., & Byun, C. G.(2018). Positive Illusion Cause Impulsive Bu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Positive Bias, Risk Attitude and Impulse Buying of Consumers.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26(1), 35-56.
- Ha, H. H., & Lim, C. H.(2011). The Effects of Positive Cognitive Bias, Perceived Risk, and Anticipated Regret on Purchase Deferr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4(6), 3633-353.
- Harris, E. A., Milfont, T. L., & Hornsey, M. J.(2022). Belief in Luck and Precognition Around the Worl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3(9), 1033-1053.
- Hoorens, V., & Buunk, B. P.(1993). Social Comparison of Health Risks: Locus of Control, the Person-positivity Bias, and Unrealistic Optim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4), 291-302.

- Hwangbo, Y., Kim, Y. J., & Kim, H. T.(2019). Meditating effe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between the Belief in Good luck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79-92.
- Hyun, S. H., Seo, M. K., & Kwon, I. S.(2016).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e-Self Evalu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Seeking Str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39-49.
- Keren, G. B., & Wagenaar, W. A.(1985). On the Psychology of Playing Blackjack: Normative and Descriptive Considerations with Implications for Decision The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14(2), 133-158.
- Kevill, A., Trehan, K., & Easterby-Smith, M.(2017). Perceiving ‘Capability’ within Dynamic Capabilities: The Role of Owner-manager Self-efficacy.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5(8), 883-902.
- Kim, D. Y., & Park, J. W.(2020). The Effects of Cognitive Bias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s through Perceived Risks i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95-112.
- Kim, S. P., Byun, C. G., & Ha, H. H.(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ime Perspective of College Student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79-88.
- Kostovičová, L.(2019).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ood Luck Belief on Cognitive Performance in Boys and Girl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5(1), 108-119.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 Lee, B. K., & Lee, G. H.(2015). The Effect of Good and Bad Luck on Attention to Background versus Object: An Exploratory Study.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8(3), 35-48.
- Lee, I. G., & Ji, S. G.(2015). The Effects of Positive Illusion on Adaptive Selling Behavior.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20(4), 157-176.
- Lee, J. H.(2021). Structur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5), 695-706.
- Lerner, J. S., & Gonzalez R. M.(2005). Forecasting One's Future Based on Fleeting Subjective Experi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454-466.
- Lerner, J., & Keltner D.(2001).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46-159.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urray, S. L., Rose, P., Holmes, J. G., Derrick, J., Podchaski, E. J., Bellavia, G., & Griffin, D. W.(2005). Putting the Partner Within Reach: A Dyadic Perspective on Felt Security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2), 327-347.
- Myers, D. G., & Diener, E.(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Nunnally, J.(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ttesen, G. G., & Grønhaug K.(2005). Positive Illusions and New Venture Creation: Conceptual Issues and An Empirical Illustration.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14(4), 405-412.
- Park, J. W., & Choi, M. J.(2016).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9-19.
- Peterson, C., & De Avila, M. E.(1995). Optimistic Explanatory Style and the Perception of Health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1(1), 128-132.
- Rosenberg, M.(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 Shin, H. S., Bae, J. E., Cho, M. O., & Lee, Y. K.(2022). Active Seniors'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Discovering Unobserved Heterogeneous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using PLS-PO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2), 15-31.
- Stanley, T. J.(2014). *Rich People's Choice*, Seoul: Boohouse.
- Taylor, S. E., & Brown, J. D.(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Kemeny, M. E., Reed, G. M. & Aspinwall, L. G.(1991). *Assault on the Self: Positive Illusions and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In G. A. Goethals & J. A. Strauss (Eds.). *The self: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239-254), New York: Springer-Verlag.
- Taylor, S. E., Klein, L. C., Lewis, B. P., Gruenewald, T. L., Gurung, R. A. R., & Updegraff, J. A.(2000). Biobehavioral Responses to Stress in Females: Tend-and-befriend, not Fight-or-flight. *Psychological Review*, 107(3), 411-429.
- Weinstein, N. D.(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iseman, R., & Watt C.(2004). Measuring Superstitious Belief: Why Lucky Charms Matter. *Personality and*

- Individual Differences*, 37(8), 1533-1541.
- Wohl, M. J. A., & Enzle, M. E.(2002). The Deployment of Personal Luck: Sympathetic Magic and Illusory Control in Games of Pure Ch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0), 1388-1397.
- Wohl, M. J. A., Stewart, M. J., & Young, M. M.(2011). Personal Luck Usage Scale(PLUS): Psychometric Validation of a Measure of Gambling-related Belief in Luck as a Personal Possession.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11(1), 7-21.
- Wohl, M. J. A., Young, M. M., & Hart, K. E.(2007). Self-perceptions of Dispositional Luck: Relationship to DSM Gambling Symptoms, Subjective Enjoyment of Gambling and Treatment Readiness. *Substance Use & Misuse*, 42, 43-63.
- Yang, J. H., Chung, D. Y., & Kim, C. K.(2017). How Entrepreneurial Role Model Affects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3), 115-136.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 Zhao, J., Li, Z., & Xiong, G.(2021). Effects of Luck Beliefs on Consumer's Variety Seeking Behavio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9(2), 1-12.
- Zhao, Y., & Xie, B.(2020). Cognitive Bias, Entrepreneurial Emotion,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1, 625.

The Effects of Luck in Belief and Positive Cognitive Bias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a, Hwan Ho*
Byun, Chung Gyu**

Abstrac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explains people's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start-ups. In this study, we focused on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luck in belief and positive cognitive bias that affec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mong these variables, we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luck in belief. The belief that business success depends on luck is widespread, but scientific verification about it has not been much. The reason for the academic indifference is that luck is a kind of superstition, related to precognition or extrasensory perception, and randomly caus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study of luck began in earnest as a measure to measure luck 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 such as personality was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isting studies on luck in belief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is luck in belief on positive cognitive bia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through empirical analysis.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400 ordinary people and conduc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AMOS 21.0 to verify the hypothesis.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all hypotheses that luck in belief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cognitive bias (self-enhancement bias, illusion of control bias, unrealistic optimistic bias) were adopted. The hypothesis that positive cognitive bias (self-enhancement bias, illusion of control bias, unrealistic optimism bia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as also adopted.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cognitive bi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uck in belief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hich showed that 'luck in belief → positive cognitive bias →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rough this, we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cognitive bi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uck in belief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Luck in Belief, Positive cognitive bias, Self enhancement bias, Unrealistic optimism bias, Illusion of control bia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 First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ano@gnu.ac.kr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Entrepreneurship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gbyun@gnu.ac.kr